
한국 대학생들과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 대학생들의 태도 차이

Differences in Attitud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Korean in Korea

김경훈*, 임미란**
광주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

Kyung-Hoon Kim(khkim@mail.kwu.ac.kr)*, Mi-Ran Lim(lmr6604@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학생들과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 대학생들의 세 가지 태도-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미국인에 대한 태도, 그리고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한국 대학생 101명과 중국 대학생 110명으로 총 211명이다. 두 집단의 태도는 Gardner(1985)의 AMTB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자료 분석은 두 집단 간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두 집단 간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미국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두 집단 간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영어 학습자들의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위하여 두 집단 간 다른 정의적 변수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 중심어 : |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 정의적 변수 |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 | 미국인에 대한 태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ree attitudes-attitudes toward English learning, attitudes toward American, and attitudes toward American culture between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Korean in Korea. The subjects are 211 students, who are 101 Korean and 110 Chinese. Gardner(1985)'s AMTB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measure the learners' attitude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ver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English learning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American between two groups. But there were no differences statistically in attitudes toward American culture between two groups. To make better learning environment for English learners, the differences in other affective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need to be studied.

■ keyword : | Attitudes Toward English Learning | Affective Variables | Attitudes Toward American Culture | Attitudes Toward American |

I. 서론

성공적으로 EFL 학습자들의 외국어 학습과 교수를 위해서는 외국어 학습과정에서 모든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와 관심은 필수적이다. 언어 학습자들이 지니고 있는 정의적 특성 중의 하나인 태도는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욕구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영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정의적 특성은 학습자가 처한 환경과 경험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여러 학자들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개개인의 태도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간접적인 만남이나 경험으로 발달된다고 한다. 이러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부모와 또래 집단 그리고 교사 등의 인적 요인과 그 문화권 내의 공통적인 고정관념(culture stereotype) 등의 사회 문화적 요인이라고 한다. 또한 인간이 특정 언어를 학습할 때 그 언어만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요소들, 즉 학습하려는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의 문화나 사람들에 대한 생각 및 태도도 함께 인지된다는 것이다[4].

주로 외국어 학습과 관련된 태도 연구는 외국어 학습에 대한 태도, 외국어에 대한 관심, 목표 원어민에 대한 태도, 수업에 대한 태도, 교사나 동료에 대한 태도, 그리고 부모의 외국어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졌다[2].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7]Gardner와 Lambert(1972)[7]가 개발한 동기와 태도에 관한 측정도구를 응용하여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및 동기와 성취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학습자의 동기가 높고 태도가 긍정적이면 영어 성취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1][4]. 즉, 영어라는 언어와 그 영어를 쓰는 화자, 그리고 그들 문화에 대해 학습자들의 태도가 긍정적일 때 영어 성취도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학습자의 부정적인 태도는 영어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나 태도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미국인과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학습자가 영어라는 언어에 노출된다는 것은 언어 자체에만 분리되어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 국민, 그리고 그들의 문화 등에 동시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영어 학습, 미국인 그리고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를 EFL 상황에서의 한국 대학생들과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배우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태도를 영어 학습 태도, 미국인에 대한 태도,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로 분류하여 이러한 세 가지 태도가 한국 대학생들과 중국 대학생들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 한국 및 중국 대학생들이 가지는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 한국 및 중국 대학생들의 미국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 한국 및 중국 대학생들의 미국문화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제 2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을 '정의적 요인'이라 한다. Brown(2000)[4]에 의하면 성공적인 언어학습은 학습자들의 정의적 요인인 자아존중(Self-Esteem), 억제(Inhibition), 모험시도(Risk-Taking), 불안(Anxiety), 감정이입(Empathy), 외향성(Extroversion), 동기(Motivation), 태도(Attitude) 등에 따라 결정되어진다고 한다.

위에서 열거한 각각의 정의적 요인을 살펴보면, 자아존중은 학습자 개인이 자신에 대해 습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평가를 뜻한다. 자아존중의 개념은 대개 총체적(general)개념의 자아존중, 상황적(situational)개념의

자아존중, 과제(Task)개념의 자아존중으로 분류하고 있다. 외국어 학습과 자아존중과의 상호 연관성 연구에서 자아 존중심이 높은 학습자가 그렇지 않은 학습자보다 외국어 학습에서 성취도가 더 높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자아존중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역제는 낮은 환경인 목표 언어 학습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방어체제를 구축할 때 생기는 인간의 심리를 말한다. 자존감이 높은 학습자는 외부의 위협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자기 방어벽을 낮출 수 있으나 자존감이 낮은 학습자는 어떤 상황이나 과제에 자신감이 없음을 자각하고 자아를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여 역제의 벽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역제나 자기 방어기제의 구축은 언어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

모험시도는 학습자가 약간의 모험을 감수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적인 추측이나 충동과 연관되는 개념으로 본다. 적절한 수준의 모험시도는 외국어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모험시도와 언어의 정확성은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지만 의사소통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모험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어 학습에서의 불안은 근심, 우려, 걱정과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지속적인 성질의 기질적(trait) 불안과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른 어떤 특정 행동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상황적(state) 불안으로 구분된다. 또한 학습자가 새로운 과제를 받아들이는 데 동기와 흥미를 유발시켜 학습자가 적극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촉진(facilitative) 불안과 학습자를 긴장시키고 소극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저해(debilitative) 불안으로 분류한다.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가 적절한 수준의 불안을 유지시키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감정이입은 타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두는 과정으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넘어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한다. 감정이입에 능한 학습자는 그렇지 못한 학습자에 비해 배우려는 목표언어를 쉽게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외향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자아 성취, 자아

존중, 그리고 전체감을 인정받고자 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외향성이 의사소통상황에서는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동기는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는 내적 충동이나 감정 또는 욕구의 개념이다. 동기 지향성에 따라 도구적 동기와 통합적 동기로 분류된다[7]. 도구적 동기는 실용적이고 도구적 목적으로 언어를 학습하는 동기이며 통합적 동기는 목표어 집단의 문화에 자신을 통합시켜 그 사회의 일원이 되고 그들과 동일시되기 위한 동기를 말한다. Gardner(1985)[6]는 동기가 언어 학습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Ellis(1998)[5]는 동기는 목표 문화권에 대한 태도와도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태도는 사람, 사물, 그리고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지속적이며 일관적인 특성을 말한다. 외국어 습득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 중 태도가 개개인의 외국어 숙달도 차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태도적인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목표어와 그 언어를 쓰는 국민들에 대해 가지는 태도라고 한다[11].

본 연구에서 살펴보게 될 정의적 변수인 태도에 대해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Oller와 그의 동료들(1977)[10]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및 미국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영어 성취도가 높게 나왔다. Hermann(1980)[8]은 목표 언어와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는 학생은 부정적 태도를 적게 가지는 경향이 있고 태도가 외국어 학습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Brown(2000)[4]은 제 2언어 학습자들의 영어와 미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영어 학습에서 이득을 얻고 부정적인 태도는 학습 동기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부정적 태도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지나친 민족주의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Stewart(2008)[12]는 학습 태도와 학업 성취도 간 관련성 연구에서 태도가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취도도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효웅(1996)[1]은 중·고등학생 780명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태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여학생이 영어

학습과 미국인에 대한 태도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 성별과 태도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또한 학년에 따라 태도도 큰 차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효용, 오준일(2000)[3]은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태도와 능력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대답한 항목이 미국인에 대한 태도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의 편차가 가장 커서 영어 학습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가지는 태도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위에서 살펴본 학습자 개인의 정의적 특성들은 외국어 학습과정에서 서로 연관되어 영향을 미친다. 즉, 학습자 개인의 정의적 변수가 성공적으로 제 2언어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상호 작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연구 설계

3.1 실험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C 대학에서 2009년도 1학기 교양수업으로 토익을 수강한 우리나라 남·여 대학생 111명과 C 대학과 H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 남·여 대학생 110명으로 총 221명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들 중 배포된 설문지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10명을 제외한 연구 대상자들은 남학생 100명, 여학생 111명으로 총 211명이다. 이 연구에 참가한 우리나라 대학생들과 한국으로 유학을 온 중국 대학생들은 초·중급 수준의 영어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로 선정하였다.

3.2 변수 측정

태도에 관한 설문지는 Gardner(1985)[6]의 AMTB(Attitude & Motivation Test Battery)를 바탕으로 이효용(1996)[1]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였다. 설문지는 연구 대상에 맞추어 수정, 보완하였다. 한국 대학생

들은 설문지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조사를 했으며, 중국 대학생들에게는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어로 번역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지는 영어 학습 태도에 관한 5문항, 미국인에 대한 태도 5문항,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를 묻는 5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구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771로 이 설문지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즉, 5점 척도에서 '매우 그렇다'=5; '대체로 그렇다'=4; '어느 정도 그렇다'=3;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매우 그렇지 않다'=1을 부여하였다. 각 태도별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이 3.6-5.0점일 경우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로, 2.1-3.5점일 경우에는 긍정적인 태도로, 1.0-2.0점일 경우는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분류하였다.

3.3 자료 분석

한·중 대학생 두 집단의 세 가지 태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의 기술적 통계치를 구하고, 이 두 집단이 사용하는 세 가지 태도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0.0을 이용하여 t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는 유의 수준 $\alpha=.05$ 로 설정하였다.

IV. 결과

4.1 한·중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차이

[표 1]은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의 두 집단 간 태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두 집단의 영어 학습에 대한 다섯 가지 태도 중, 한국 대학생들의 평균이 '학교 밖이나 집에서도 영어로 대화해보고 싶다'와 '영어가 방송에서 나오면 열심히 듣는다'는 항목에서 중국 대학생들보다 높게 나왔다. 그리고 중국 대학생들은 이 두 가지 태도를 제외한 나머지 영어 학습 태도에서 한국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태도 점수를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 대학생들은 '학교 밖이나 집에서도 영어로 대화해보고 싶다'는 항목에서, 중국 대학생들

은 ‘영어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영어로 대화하고 싶다’는 문항에서 가장 높은 평균이 나왔다. 그리고 두 집단의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평균을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 집단의 평균은 3.15, 중국 대학생 집단의 평균은 3.36으로 나와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영어 학습태도를 보여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중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영어 학습 태도 면에서 더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 대학생들은 교실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에서 더 긍정적인 반면에 한국 대학생들은 교실 밖에서 행해지는 영어 학습 태도 면에서 중국 대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이다.

표 1. 영어 학습 태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한국(n=101)		중국(n=110)	
	M	SD	M	SD
영어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영어로 대화하고 싶다	3.12	.94	3.77	.91
선생님께서 영어로만 가르쳐주시는 것이 재미있다	2.80	.89	3.35	1.05
친구들과 교실에서 영어로 대화해보고 싶다	3.22	.97	3.60	.83
학교 밖이나 집에서 영어로 대화해보고 싶다	3.33	.92	2.87	.87
영어가 방송에서 나오면 열심히 들어 본다	3.30	.92	3.20	.95

[표 2]는 유의수준 .05에서 영어 학습 태도에 따른 한국 대학생들과 중국 대학생들의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t검증 결과를 나타낸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 학습에 대한 다섯 가지 태도 중 ‘영어가 방송에서 나오면 열심히 귀를 들어 본다’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태도 항목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영어 학습 태도의 t검증 결과표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t	df	p
영어수업시간에 선생님과 영어로 대화하고 싶다	-5.143	209	*.00
선생님께서 영어로만 가르쳐주시는 것이 재미있다	-4.022	209	*.00
친구들과 교실에서 영어로 대화해보고 싶다	-3.097	209	*.00
학교 밖이나 집에서 영어로 대화해보고 싶다	3.692	209	*.00
영어가 방송에서 나오면 열심히 들어 본다	.757	209	.45

4.2 한·중 대학생들의 미국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

[표 3]은 두 집단 간 미국인에 대한 태도에 따른 평균 및 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인에 대한 다섯 가지 태도에 따른 두 집단의 평균을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들이 다섯 가지 태도 모두에서 중국 대학생들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왔다. 즉, 한국 대학생들은 중국 대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미국인들에 대해 더 긍정적이며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두 집단의 미국인에 대한 태도 전체 평균을 보면 한국 대학생 그룹은 3.89, 중국 대학생 그룹은 3.61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미국인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미국인에 대한 태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미국인에 대한 태도	한국(n=101)		중국(n=111)	
	M	SD	M	SD
미국인을 보면 가까이 다가갈려고 말을 걸고 싶다	3.62	.97	2.98	.91
미국인이 다가와 길을 물으면 친절히 가르쳐 주고 싶다	4.07	.87	3.84	.93
미국인을 친구로 사귀고 싶다	4.25	.90	3.97	.78
미국인과 이메일이나 편지를 주고받고 싶다	3.68	.99	3.53	.92
영어캠프나 행사 등 미국인과 함께 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	3.84	.99	3.75	.88

[표 4]는 미국인에 대한 태도에 따라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유의수준 .05에서 t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t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인에 대한 다섯 가지 태도 중 ‘미국인을 보면 가까이 다가갈려고 영어로 말을 걸고 싶다’와 ‘미국인을 친구로 사귀고 싶다’는 두 가지 태도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미국인에 대한 태도의 t검증 결과표

미국인에 대한 태도	t	df	p
미국인을 보면 가까이 다가갈려고 말을 걸고 싶다	4.97	209	*.00
미국인이 다가와 길을 물으면 친절히 가르쳐 주고 싶다	1.87	209	.06
미국인을 친구로 사귀고 싶다	2.37	209	*.01
미국인과 이메일이나 편지를 주고받고 싶다	1.18	209	.24
영어캠프, 월드컵 행사 등 미국인과 함께 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	.75	209	.46

4.3 한·중 대학생들의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의 차이

[표 5]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미국 문화에 대한 다섯 가지 태도에 따른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 준다.

표 5.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	한국(n=101)		중국(n=111)	
	M	SD	M	SD
영어책이나 영화를 보며 미국 문화를 알고 싶다	3.81	.99	4.02	.79
영어책을 읽고 영어를 하는 미국인들의 생활모습을 알고 싶다	3.85	.85	3.77	.80
미국 관광을 하며 미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고 싶다	4.46	.78	4.33	.73
인터넷을 통해 영어로 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싶다	3.47	.94	3.55	.90
유학을 가서 미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	4.30	.87	4.08	.79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섯 가지의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중국 대학생들보다 ‘영어책을 읽고 영어를 하는 미국인들의 생활 모습을 알고 싶다’,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관광을 하며 문화를 직접 보고 싶다’, ‘유학을 가서 미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세 가지 태도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왔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태도 문항인 ‘영어책이나 영화를 보며 미국 문화를 알고 싶다’, ‘인터넷을 통해 영어로 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싶다’에서 중국 대학생들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은 직접 미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태도에서 더 긍정적인 반면에 중국 대학생들은 영어책이나 영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간접 체험에 대한 태도에 더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리고 두 집단의 미국 문화에 대한 다섯 가지 태도 평균을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 집단은 3.98, 중국 대학생 집단은 3.95로 두 집단 모두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6]은 한·중 대학생 두 집단의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섯 가지 태도 별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6]에서 유의수준 .05에서 t검증을 한 결과를 보면 한국 및 중국 대학생들의

두 집단 간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의 다섯 가지 항목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6.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 t검증 결과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	t	df	p
영어책이나 영화를 보며 미국 문화를 알고 싶다	-1.67	209	.09
영어책을 읽고 영어를 하는 미국인들의 생활모습을 알고 싶다	.69	209	.49
미국에서 관광을 하며 미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	1.24	209	.22
인터넷을 통해 영어로 된 여러 가지 정보 알고 싶다	-.629	209	.53
유학을 가서 미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	1.89	209	.06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과 중국 대학생들의 세 가지 태도-영어 학습에 관한 태도, 미국인에 대한 태도, 그리고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에 대한 두 집단의 차이에 관해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1에서 두 집단 간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학교 밖이나 집에서도 영어로 대화해보고 싶다’는 태도 문항에서 평균이 가장 높았고, ‘선생님께서 영어로만 가르쳐주시는 것이 재미있다’는 태도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 대학생 집단은 ‘영어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영어로 대화하고 싶다’는 태도 문항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고, ‘학교 밖이나 집에서도 영어로 대화해보고 싶다’는 태도에서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와 한국 대학생들과는 아주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긍정적인 태도 항목에서 중국 대학생들은 가장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연구 결과이다. 또한 영어 학습 태도에 대한 다섯 가지 태도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중국 대학생들의 태도가 한국 대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대학생 집단: M=3.15; 중국 대학생 집단: M=3.36). 그리고 미국인에 대한 태도 중 ‘영어가 방송에서 나오면 열심히 듣는다’는 문항의 태도를 제외하고 네 가지

태도의 문항 모두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에서는 두 집단 간 미국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서 한국 대학생들과 중국 대학생들 모두 '미국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싶다'는 태도에서 평균이 가장 높았고, '미국인을 보면 가까이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걸고 싶다'는 태도에서 가장 낮은 평균이 나왔다. 이는 미국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싶은 태도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미국인을 보면 가까이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걸고 싶은 태도에서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미국인을 친구로 사귀고 싶지만 실제로 미국인을 보면 영어로 말을 걸어보는 시도에서는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두 집단의 미국인에 대한 다섯 가지 태도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 집단은 3.89, 중국 대학생 집단은 3.61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미국인에 대한 태도가 아주 긍정적인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인에 대한 태도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는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태도로는 '미국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싶다($t=4.97, p=.00$)' '미국인을 보면 가까이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걸고 싶다($t=2.37, p=.02$)'는 두 가지 태도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에서 한·중 두 집단의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알아보았다.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 차이의 연구 결과 한·중 대학생들의 두 집단 각각 '미국 관광을 하며 미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고 싶다'는 태도에서 가장 높은 평균(한국 대학생 집단: $M=4.47$; 중국 대학생 집단: $M=4.34$)이 나왔고, '인터넷을 통해 영어로 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싶다'는 태도 문항에서 가장 낮은 평균(한국 대학생 집단: $M=3.47$; 중국 대학생 집단: $M=3.55$)이 나왔다. 그리고 다섯 가지 항목의 두 집단 간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 전체 평균을 보면 한국 대학생 집단의 평균은 3.98, 중국 대학생 집단은 3.95로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간 미국 문화에 대한 다섯 가지 태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결론 및 제언

제 2외국어 교실에서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시도는 학습자들이 수동적이 아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정의적 특성 중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영어 학습과 미국인 및 미국문화에 대해 가지는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영어 교사와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또한 태도는 교사의 노력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정의적 요소로 교사가 수업 환경이나 여러 활동을 통해 외국어 학습자의 학습 태도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학습자 자신이 겪는 경험이 긍정적이면 영어 학습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게 되는 반면에 그 경험이 부정적이면 학습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

본 연구 결과는 한·중 대학생들의 세 가지 태도 중 미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 영어 학습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재 개발 및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문화를 교육할 때 교육 목표는 2 외국어으로써 영어를 배우는 EFL 상황에서 무조건 상대방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식의 교육이 아니라 문화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 간 의사소통에 보다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서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다[9].

본 연구는 편의상 다수의 연구 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를 통한 연구는 다소 연구 대상자들의 주관성이 연구 결과에 개입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연구대상을 두 개 대학교의 대학생들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한국 및 중국 대학생들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차후에 행해질 연구는 여러 학교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이외의 다른 연구 방법으로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이 연구를 기반으로 영어를

제 2외국어로 하는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의 정의적 변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학습자들의 정의적 특성의 차이점을 고려한 교수 및 활용 방법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 문헌

[1] 이효웅, "한국 중·고등학생의 태도와 동기가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 51,2, pp.3-34, 1996.

[2] 이효웅, *영어교육 태도, 동기 및 책략과 성취도와 의 상관관계*, 서울, 한국문화사, 1999.

[3] 이효웅, 오준일, "영어 학습태도와 능력간의 상관관계", *영어교육*, 55, 4, pp.289-309, 2000.

[4] H. D. Brown,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New York, Longman, 2000.

[5] R. Ellis, *외국어습득론*, 김윤경 역, 한국문화사, 1998.

[6] R. C. Gardner, *The Attitude/Motivation, Test Battery: Technical Report*,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1985.

[7] R. C. Gardner and W. E. Lambert, *At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Rowley, MA., Newbury House, 1972.

[8] G. Hermann, "Attitudes and Success in Children's Learning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he Motivational vs. the Resultative Hypothesis,"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34,4, pp.247-254, 1980.

[9] R. Lado, *Language Teaching*, New York: McGraw-Hill, 1964.

[10] J. W. Oller, A. J. Hudson, and P. F. Liu, "Attitudes and Attained Proficiency in ESL: Sociolinguistics Study of Native Speakers of Chinese in the United States," *Language Learning*, 27, pp.1-27,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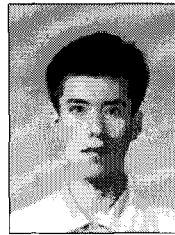
[11] B. Spolsky, "Attitudinal aspects of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19, pp.271-283, 1969.

[12] E. B. Stewart, "School Structural Characteristics, Student Effort, Peer Associations, and Parental Involvement: The influence of school and individual-level factors on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 and Urban Society*, 40,2, pp.179-204, 2008.

저자 소개

김 경 훈(Kyung-Hoon Kim)

정회원



- 2000년 2월 : 조선대학교 영문학과(문학사)
- 2002년 8월 : 조선대학교 영문학과(문학석사)
- 2006년 8월 : 조선대학교 영문학과(문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어 교육, 멀티미디어

임 미 란(Mi-Ran Lim)

정회원



- 2001년 2월 : 조선대학교 영문학과(문학석사)
- 2006년 2월 : 조선대학교 영문학과(문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조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관심분야> : 영어 교육, 멀티미디어